

## 未婚 男性의 家族意識에 관한 考察

釜山 地域을 中心으로

Study on family Consciousness of Unmarried Man

동아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 고 정 자

Department of Home Management

Dong A University

Assistant Prof. Ko Jung Ja

目 次	
I. 序論	3. 家族計劃에 관한 意識
II. 理論的 背景	4. 相續에 관한 意識
1. 家族一般에 관한 意識	III. 研究方法 및 節次
1) 家族構造의 變遷	1. 測定道具의 作成
2) 父母子息간의 關係	2. 調查對象 및 資料의 蒐集
① 老父母 奉養	3. 分析方法
② 子息에 對한 父母의 態度	4. 研究의 制限點
2. 婚姻에 관한 意識	5. 調查對象者の 一般的 性格
1) 异性交際와 配偶者 選擇	IV. 結果 및 考察
2) 婚姻의 동기	V. 結論
3) 婚姻의 目的	參考文獻

### = ABSTRACT =

After accepting the modernized western culture, we, the Koreans, had traditionally patriarchal valuation on the family life, which has been changed into modernized one in these days. Under these circumstances, we examined into family consciousness of workmen, office workers and student of universities in Pusan with questioning papers by inquiring their general views of family, marriage, family planning, and inheritance.

The results obtained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1. General views of family

- 1) Most of them prefer nuclear family to gross one in structure of family. In decision of family's affairs, the lower educated persons want an unilateral relationship, which means unconditional obedience to their parent's opinion. They are more concerned about the profit of the family than that of individual. On the other hand, they want separate living from parents when they get old. Such proves that they want 2-generations nuclear family system
- 2) Concerning children's future affairs, they want compromising method.

### 2. Views of Marriage

- 1) Date with the other sex motivated their desire to improve social adaptation and social association. 17-19 year old students regard date as a preparatory stage of marriage. They consider it most desirable date to enjoy free conversation each other. They hope their date partners are high educated.
- 2) The conditions of mate selection are in order character, health, vitality in living, appearance and education. The less educated placed an emphasis on vitality in living.
- 3) They are not much interested in marital harmony. If parents are against their marriage on account of bad marital harmony, they will take into consideration about it.
- 4) They wish to keep purity before marriage, as possible. They want engagement period of 6 months. Any agreeable reasons shall compel them to break off their appointment.
- 5) They consider it ideal for mate's age to be 26-30 years old, and also think it affirmative to follow their parent's agreement in marriage. It is considerable that they put off their marriage only because they have lots of work to do before marriage.
- 6) Marriage declaration is to be made on the wedding day. It still exists that they don't want to marry when they are in the same surname and family tree. But it is clear that they don't regard it as the reason of breaking off the betrothal.

### 3. Family Planning

- 1) They are willing to agree to the campaign "just two is enough". They want a son and a daughter. Even though they have two daughters, they won't bear child to get son.
- 2) The lower educated persons are ignorant of the method of birth control.

### 4. Inheritance

- 1) Most of them say householder inheritance is to be kept up continuously. It is reasonable that anyone who can afford to perform religious service should bear its responsibility.
- 2) They don't want the difference in inheritance as the conscious of the conscious of the equality of the sexes spread widely into our society, but it

is worthy of notice that some of them still don't mind unequal treatment.

- 3) When they have no child, the property inheritances are in order his wife and his parents.

According to above mentions, we conclude like this;

Their consciousness of marital harmony, marriage, family planning and inheritance shows definitely passive rationalism in the transitional stage which is mixed with western individualism and traditional feudalism. On account of being lack of steadfast self-conscience, they can not make their positive reaction on anything. Finally, we should make every possible efforts to have our firm self-conscience through the re-education.

## 序論

사람은 社會를 中心으로 生活을 영위하고 있다. 이 社會는 一次的으로 個人으로 构成되어 있으며 個人이 모여서 构成하는 최초의 生活共同體가 家族집단이다. 이 家族이라는 概念은 一夫一婦와 그의 子女가 永續的 으로 結合되어 共同生活을 하는 하나의 社會團體라고 規定할 수 있다<sup>1)</sup>. Kepbart는 家族이란 모든 人間社會組織의 가장 주목할 만한 組織이고 어떤 社會보다도 오래되었고 家族보다 더普遍的인 것은 없다고 指摘하였다<sup>2)</sup>. 李光奎도 家族은 社會를 存在케 하는 必須不可決의 기본단위일 뿐 아니라 個人에게도 必要한 社會團體라고 했다<sup>3)</sup>. 그러나 오늘날 韓國人の 家族生活은 西歐文化의 導入以後 近代化過程을 通해서 意識面에 서는 낡은 傳統的인 價值觀에서 새로운 近代的인 價值觀으로 서서히 變化되어 가고 있다.

都市家族의 親子中心의 傳統的인 家族概念에서 夫婦中心의 近代的 家族理念으로 变모해 가는 傾向 등에서 볼 수 있듯이 前近代的인 意識과 近代的 意識이 共存하는 二元的 意識構造를 가진 過度的 段階에 있는 것이다<sup>4)5)</sup>. 이러한 社會變遷趨勢에 따른 過度的 家族意識에 있어서 儒教를 中상하는 우리나라의 傳統的인 習俗에 급격한 變化를 招來하여 家本位의 大家族制度가 夫婦中心의 小家族制度로 变모해 가고 있다<sup>6)</sup>. 그러나 이러한 가족구조상에도 아직 傳統的인 家族意識으로써 遷齡期 男女의 은전 순결문제, 남아 선호사상, 장남과의 결혼기피 경향등은 우리 사회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血緣共同體, 運命共同體라는 內的인 特徵과 傳

統的인 家本位의 家族意識이라는 外的인 特徵을 지닌 우리나라 家族制度에는 西洋文化의 理念이 완전히 침투하지는 못해 韓國의 傳統的인 基本構造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漸進的 민주개혁을 단행하여 民主化를 促進시켰다<sup>7)</sup>. 그래서 우리나라의 家族制度는 理論的으로나 一般論에 있어서는 近代化하고 있으면서도 行動面에서는 自己自身의 問題의 경우에 前者에 있어서 보다 華麗傳統主義의 保存率이 上昇되는 것이다. 이러한 狀況 아래 家父長의 傳統的 思考方式이 殘存하고 있는 未來의 家長으로서의 役割을 수행해야 할 未婚男性들의 미래의 家族形態, 父母子息間의 關係, 結婚, 家族計劃, 相續에 대한 意識을 通해서 그들이 家族에 대해서 어떠한 意識을 지니고 있느냐 하는 것을 分析하므로써 새로운 가치체계를 정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 理論的 背景

### 1. 家族一般에 관한 意識

#### 1) 家族構造의 變遷

家族은 社會의 가장 基本的인 共同生活體로 愛情을 基盤으로 한 夫婦關係와 血統으로 結付된 特定한 人員으로 構成된 集團이다<sup>8)</sup>. Le Play는 歷史上으로 나타난 家族構造形態를 家父長制 大家族과 個人中心의 不安定한 家族 그리고 두 양극적인 形態의 中間에 속하는 直系家族으로 나누었고<sup>9)</sup>, Murdock은 핵가족, 확대가족, 부혼가족으로 인류의 가족형태를 구분하고 있다<sup>10)</sup>. 이러한 가족형태는 동시대에 같이 存在할 수도 있지만, 시대에 따라 文化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도 있고 변화·발전될 수도 있다. 물질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라 우리사회도 과거 傳統社會로 부터 現代 產業社會로 이동하게 되고, 이에 따라 사회전반에 걸친 变化이 이루어졌다. 그중에서도 우리의 家族構造上의 变化는 무척 크다고 할 수가 있고 이러한 变化는 우리의 意識과 生活態度에도 광범위한 变化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一般的인 家族構造의 變遷推移는 첫째, 家族形態의 축소화 및 단순화를 들 수 있다<sup>11)</sup>.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가족제도가 점차 부부중심의 핵가족으로 변화해감에 따라 가족제도 자체가 많은 变化를 겪고 있다. 이제까지 大家族制度에서는 가능하면 많은 子女를 두어 가문의 質的인 향상 뿐만 아니라 量的인 팽창을 기하려 했던 경향은 점차 사라지고, 반대로 가능하면 小數의 子女를 두어 단란한 부부위주의 가정생활을 누리고자 하는 夫婦와 未婚子女 中心의 저극히 폐쇄적 (privatized)<sup>12)</sup>인 家族構造와 形態로 바뀌고 있는데, 產業化와 도시화가 促進됨에 따라 이러한 核家族化 현상은 앞으로 더욱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家族機能의 상실과정을 들 수 있다. 가족의 機能은 時代와 地域에 따라, 文化的 背景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데, Ogburn은 家族機能을 主機能과 副機能으로 分類하고 있고<sup>13)</sup>, MacIver는 생식과 자녀양육, 부부의 성적욕구의 안정적 만족, 물심양면의 안전성을 갖는 가정의 제공등의 家族의 필수의 機能과 그의 여분의 機能(2차적 기능)<sup>14)</sup>으로 구분하였다. 大矯등은 家族의 機能을 고유기능, 기초기능, 파생적 기능으로 나누었다<sup>15)</sup>. 다시 말하면 가족의 기능을 크게 본질적인 기능과 파생적인 기능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傳統의in 家父長制 家族에서는 이러한 機能이 모두 家族內에서 이루어졌지만 社會가 近代社會로 發展함에 따라 家族의 機能이 축소되어 파생적 기능은 家庭이외의 기관으로 移讓되었다. 하지만 本質의in 家族의 機能은 家族에게 그대로 남아있고 사회가 아무리 변화·발전할지라도 가족이 존재하는 한 그대로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째 大家族制度가 차츰 夫婦中心의 核家族단위로 바뀌어짐으로家長의 절대적인 권력에 무조건 복종해야 되었던 과거의 제도적 (institution) 인 봉건가족형태에서 夫婦의 애정위주로 결속된 단순히 男女동반자 (companionship)<sup>16)</sup> 두 사람만을 위한 집단의 형태로 변모해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전통적 관습이나 제도로 부터 해방되어 순수하게 인간적인 감정을 기초로 하는 인간집단으로 純化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위와 같은 一般的인 가족구조의 变化은 산업화 및 도시화의 추세와 더불어 전통적 가부장제 대가족이 이상형이었던 우리 사회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점차 핵가족화 현상을 취해가고 있다. 그러나 宋漢奎의 研究를 보면 구세대로 구성된 大家族은 1955년에서 1975년 사이에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높고 (28.2%→21.1%), 도시 (18.9%→15.0%)와 농촌 (31.2%→27.0%)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화한 서양사회인 미국이 1960년에 핵가족 비율이 94.7%, 영국(1966년) 95%<sup>17)</sup>에 비하면 우리나라에는 핵가족 비율이 아직도 현저히 낮다고 할 수 있다.

도시화나 산업화에도 불구하고 서양사회보다 여전히 낮은 것은 전통적 제도와 관념의 영향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발전에 따라 지역간의 차이는 있지만 핵가족 형태는 점차 증가하리라 예상된다.

## 2) 父母子息간의 關係

### ① 노부모 봉양

우리의 전통적 가족제도는 장남이 부모를 모시고 3~4대가 같이 모여 사는 직계 대가족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국가의 근대화·도시화로 인한 인구의 이동, 주거지역의 축소화와 더불어 변모해 가고 있다.

Russell은 산업혁명의 영향과 개인주의적 원리에 의하여 자식들이 자유사상에 의한 결혼과 부모와의 떨거움속이 보편화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러한 경향이 증대되고 있어서 자식이 부모에 대해 노후봉양의 책임감이 희박해지고 부모와의 동거경향이 차츰 적어지고 있다<sup>18)</sup>는 사실은 아들로서의 전통적 역할이 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통적 의식은 도시와 농촌간에는 차이가 있기 마련이지만 조사에 의하면 전통성이 강한 농촌에서도 연령이 많아질수록 장남과의 동거 희망경향이 높아지고 반대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장남과의 동거희망비율이 적어졌다<sup>19)</sup>. 즉 도시화·산업화의 영향으로 과거 장남 책임의 노부모 봉양이 점차 부모 스스로 노후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 의식이 변화되고 있고 이러한 세대간의 의식적 대립은 불화를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父母子息間에 새로운 윤리체계가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② 자식에 대한 부모의 태도

전통적인 가족제도하에서는 부모자녀간의 관계가 종속적이어서 오로지 부모에 대한 자녀의 절대적·무조건적 복종관계였다. 이러한 염려하고 부모중심적인 전통적 가치의식이 도시화·산업화 및 이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로 말미암아 점차 자녀에게 자유를 허용하고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게 되었다.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도시는 물론 농촌에서도 88% 이상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는 한 연구 결과<sup>20)</sup>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점차 의식구조가 근대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겠다.

## 2. 婚姻에 관한 意識

### 1) 異性交際와 배우자 선택

한국 가족생활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가장 뚜렷한 변화를 나타내는 것은 자녀들의 이성교제와 혼인에 관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전통사회에서는 제도적으로 부모나 집안어른들이 主婚者로서 자녀들의 혼인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권리를 행사하였으나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우리의 의식구조도 많은 변화를 겪게되어 부모가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자녀들의 의사와 반영하는 형태로 변모하다가 요즈음은 자녀들이 배우자를 선택하고 부모의 승낙을 받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sup>21)</sup>.

이러한 변화는 男女가 婚姻前 異性交際를 할 수 있는 社會的 여건(남녀 동등한 교육혜택, 남녀공학, 학교 이외의 교회 및 기타 서클활동, 직장생활등)이 갖추어짐으로써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성교제가 자유롭게 이루어짐으로써 동반되는 문제점이 있게 되는데, 그중 가장 큰 것이 혼전 순결문제라 하겠다. 과거와는 달리 혼전 성경험이 증가하고 있고 이성친구와의 성경험에 대한 이해가 남녀사이에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최신덕<sup>22)</sup>의 연구에 의하면 남녀 근로자들이나 남녀대학생들 사이에서 상대자의 혼전 성관계를 이해하거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였으나 남녀별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나 여자는 남자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는데 비해 남자는 여자의 성경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즉 전통적 사고방식(女子들에게 一夫從事과 순결이 요구된 윤리관)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래서 혼전 성관계는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남녀 사이에 미묘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남녀사이에 이성교제를 추구하는 추세는 배우자선택의 기준에

주목할만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Linton은 사회마다 정도의 差는 있으나 差別의 선택 (preferential mating)을 함으로써 배우자 선택조건과 기회를 규제하게 되며 結婚當事者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한 集團이나 社會의 다른 成員들도 配偶者の 選擇과 決定에 參與하게 된다고 했다<sup>23)</sup>. 傳統社會에서는 전적으로 父母, 家門에 있었으나 近來에 와서 婚姻은 個人的 幸福을 우선으로 하여 婚姻을 成功的으로 이끌도록 하고 있다. Groves는 結婚生活의 好은 出發條件으로 健康 好은 家庭的訓練 教養과 知能, 舊世代로 부터의 實際的인 援助, 人生에의 現代的인 出發, 충분한 財政的 基礎 등 6 가지는 사회적 시대적 배경이 다른 우리나라에서는 달라질 것이 분명하다 하겠다. 그리고 日本의 경우 津留宏는 性格, 教養, 趣味의 一致, 理解와 愛情, 經濟의 安定, 健康, 家門 및 血統, 係累가 없을것, 兩親의 承認, 용모가 보통 이상등의 順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趙沂烘의 女子大學生에 對한 調査에서 性格, 健康, 經濟力, 學歷의 順이었고<sup>24)</sup> 柳時中의 研究에서는 男子의 경우 性格과 愛情, 健康, 婚前純潔, 才能, 學歷의 順이었고 女子의 경우는 性格, 愛情, 健康, 才能, 學歷 및 職業, 婚前純潔의 順으로 나타났다<sup>25)</sup>. 종전에個人의 自由意思보다 父母의 選擇을 따르며 選擇의 基準도 個人보다 家門의 社會的 地位를 問題示하였다지만 오늘날에는 당사자의 자유선택이 더욱 중요시 되었다.

그리고 結婚은 愛情에 근거한 것이므로 짧은 男女에게 레이트가 必要하게 되었다<sup>26)</sup>. 따라서 「男女 7세 不同席」이라는 儒教의 思考 아래 男女間의 自由스런 交際를 엄격히 制限하고 심지어는 罪惡시까지 하였던 옛날과는 달리 이제는 結婚前의 異性交際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으며 社會生活의 자연스런 現象으로 配偶者 選擇을 위한 意識的手段이 아닐지도 하나의 必要한 過程으로 認定되어 가고 있다.

### 2) 婚姻의 동기

婚姻이란 各己 相異한 生活背景과 環境속에서 자라난 각各 獨特한 個性을 지닌 두 人間의 結合으로서<sup>27)</sup> 慣習과 導德, 態度, 理念, 理想의 總體이고 社會的 規制, 法律의 規制를 받는 制度이기도 하다<sup>28)</sup>. O'Neill은<sup>29)</sup> 個人的 成熟없이는 如何한 結婚生活도 無氣力한 것이 되며 아무리 成熟한 夫婦라도 짧은 時間に 疲倦을 느끼게 되다고 하였다. 結婚의 動機도 個個人에 따라 相異하다. 그러나 一般的으로 結婚의 根本의 인

動機가 相對方에 대한 真實한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 결혼은 成功하기가 쉽고 幸福을 成就하기가 보다 쉬워진다<sup>30)</sup>. Truxal<sup>31)</sup>은 結婚의 動機를 ① 正常的인 愛情結婚 ② 財產을 노린 結婚 ③ 兵役忌避을 위한 結婚 ④ 享樂結婚 ⑤ 精神的 安定을 위한 結婚 ⑥ 社會的 安定을 위한 結婚으로 分類하고 있다. 물론 個人的 慾求는 社會의 意義에 의해 統制되고 社會結合의 擴張이 되기도 한다. 結婚의 動機는 그 時代와 社會에 따라 다소 順序가 바뀔지라도 根本的으로는 크게 바뀜이 없는 精神性的, 感情的 安定에 重點을 둔 性的 滿足과 性的 慾求의 統制와 種族繼承 및 社會의 構成 要素등이 될 수 있다<sup>32)</sup>. Landis는 結婚의 動機를 ① 사랑 ② 社會의 인 地位獲得 ③ 經濟的 安定의 獲得 ④ 社會의 期待 ⑤ 心理的 安定의 獲得 ⑥ 父母의 家庭에서의 獨立 ⑦ 個人의 人格의 完成을 위한 것 7 가지로 들었다<sup>33)</sup>. 劉永珠는 結婚의 動機를 ① 性的 慾求를 滿足하기 위해 ② 子女出產 및 教育을 위해 ③ 愛情 및 心理的 安定을 얻기 위해 ④ 社會의 慣習上 ⑤ 成人の 地位 및 役割을 얻기 위해 등 5 가지로 分類했고<sup>34)</sup> 柳時中은 ① 家系繼承 ② 愛情의 亨有 ③ 情緒的 安定 ④ 生活上の 便宜 ⑤ 祖上제사 ⑥ 父母에의 孝道 ⑦ 새 家庭의創造등 7 가지로 들었다<sup>35)</sup>.

### 3) 婚姻의 目的

古代 西歐社會에서는 宗教와 儀式을 통해 자식을 얻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중세봉건사회에서도 가문간의結合手段과 새로운 일꾼의 增員을 위해 행해져 왔으며 이는 중국, 일본, 우리나라에서도 基本目的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上以事宗廟, 下以事繼後世」<sup>36)</sup>를 婚姻의 目的으로 삼고 집과 男子를 위한 婚姻이었고 家系繼承을前提로 하는 家父長制 家族制度였으며 이조에는 家門의 번영이 그 목적이었으나<sup>37)</sup> 오늘날의 婚姻目的是 社會의 意義를 더 重視하고 있다. 그러므로 당사자의 참된 幸福을追求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 3. 家族計劃에 관한 意識

가족계획이란 보다 나은 家庭과 社會를 건설하기 위한 건설적 生산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진정한 目的是 보다 계획적으로 적절한 터울로 넣고, 넣은 수 만큼의 자녀를 훌륭하게 기르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61년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발족하여 이에 대한 운동을 시작하였으며 1962년에는 경제개발사업

의 일원으로 정부시책으로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국민의 자녀수에 대한 의식 구조에도 많은 변화가 오게 되었다. 1964년에는 아들 2명, 딸 1명이 가장 바라는 이상 자녀수였고 그 다음이 아들 3명, 딸 2명이었다<sup>38)</sup>. 1974년에는 2.47명을 이상 자녀수로 원하고 있었고<sup>39)</sup>, 1977년에는 2명(61%)<sup>40)</sup>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통적인 한국인의 자녀수에 대한 가치관은 “多男多福”으로 집약되며, 이러한 전통은 현대가족에서도 대체로 변함이 없다. 한 조사에 의하면 한국여성들의 90%는 아들은 더 좋아하며 딸만 있는 경우에는 원하는 자녀수를 초과할지라도 더 낳으려는 경향이 있다<sup>41)</sup>는 것으로 보아 아직도 전통적 남아선호사상이 우리사회에 뿌리박혀 있어서 가족계획을 추진하는데 새로운 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4. 相續에 關한 意識

人間社會에서 相續制度가 大部分의 國家에서 行하여 지고 있다는 사실은 상속제도가 얼마나 인간사회 생활과 밀접한 關係를 가지고 있는가를 明示해 주는 것이다<sup>42)</sup>. 그러므로 近代法에서도 相續은 대체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의 財產이 다른 一定한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이라고 觀念되고 있고 또한 어떠한 형태의 相續에서도 財產의 繼承을 수반하지 않는 것은 없었다고 한다<sup>43)</sup>. 相續의 形態는 各 民族, 時代에 따라서 歷史의 意義를 有する 유형으로 明示되었다 하더라도 그 근본적인 핵심에 있어서는 항상 財產相續을 수반하고 있는데, 제사상속 祖名相續은 재산상속을 否定하는 立場에 있다. 祭祀相續이 전형적으로 이루어졌던 古代 Greece나 Rome의 相續에 있어서까지 「祭祀없이는 相續 없다」<sup>44)</sup>라는 法諺이 있다. 우리民法에서는 私有財產制度를 긍정하고 있기 때문에 相續制度는 인정되고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男性 위주의 相續일 뿐 女性의 相續法上의 지위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며 三韓時代부터 原則의 으로 長子相續制가 확립되었고 古代 인도의 父權社會에 있어서는 그 家族宗教와 密接한 관계로써 長子相續制가 行하여 졌고<sup>45)</sup> 中國의 周代에서도 長子相續이었던 것이 分明하며 古代의 日本에서는 未子相續, 弟兄相續, 長子相續制의 過程을 취하였다고 說明되고 있다<sup>46)</sup>. 이와같이 古代社會에서는 東, 西洋을 막론하고 長子 위주 또는 男性위주의 相續制度가 行하여 졌다. 高麗時代는 佛教왕성과 더

불어 戸主相續 中心이 되어 婦長男相續을 原則으로 하되 男孫이 없을 경우 女孫이 繼承할 수 있었다. 이조時代에 들어서는 祭祀를 重要시하여 祭祀傳承에 重點을 두고 血統의 純粹性을 強調하게 되면서 부터 財產相續이 준하게 되었다. 즉 長子優待不均等相續은 長子가 祭祀觀을 傳承하는 承重子이기 때문에 加給되는 것이다. 長子는 宗家의 家廟, 家舍, 祭田, 墓田, 祭器等의 特別財產과 그 외의 보통 財產相續, 奴婢, 田宅을 또한 實제에 있어 偏重相續하였다. 그러므로 女子는 實제로 婚姻時에 財產分配를 받는 경우도 있었으나 有產의 相續分으로서는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는 現在 祭祀相續은 폐지하고 신분상속으로서의 戸主相續과 財產相續만 인정하는 二元的인 相續制度를 채택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相續制度의 重要한 特徵은 戸主制度面에서 戸主權을 비교적 恒久化한 점과 男系優選原則을 採擇한 점이다. 財產相續面에서는 女子相續權을 확립하고 共同相續으로 전환하였지만 男, 女 차별적인 相續分을 策定한 점이 特徵이다. 이와같은 特徵 가운데 女戶主權과 女子의 財產相續權을 확립하고 財產相續을 共同相續制로 전환한 점은 舊法에 비해서 현저한 改革이다.

### 研究方法 및 節次

#### 1. 測定道具(設問紙)의 作成

文獻 및 先行研究를 근거로 하여 設問紙를 작성, 부산시내에 거주하는 未婚男性 100 名을 對象으로 하여 예비검사를 거친후, 그결과를 Thurston 法에 依한 문항 타당도 檢證을 하여 최종적으로 33 문항을 선택하여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 2. 調查對象 및 資料의 菘集

本研究의 調查地域은 부산시로 한정하였으며, 調查對象은 부산시내에 거주하는 未婚男性(사상공단의 會社, 금성사, 렉키, 東亞大學校, 釜山大學校) 500 名을 그 對象으로 하였다.

本研究에서 택한 調查方法은 設問紙를 使用한 社會調查方法으로 실시되었다. 자료수집은 1983 年 5 月 1 日부터 6 月 30 日까지 본 연구자 및 본교 가정학과 학생 수명이 선정된 회사와 대학교를 방문하여 조사대상자들에게 요청을 설명한 후 답을 직접 작성케하였다.

총 배부된 설문지는 500 부였고, 회수, 분석에 사

용된 설문지는 363 부였다.

#### 3. 分析方法

本 調査 設問紙의 構成은 調査對象者の 一般的 性格을 파악하기 위한 4개 문항과 본 연구를 위한 29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調査對象者の 一般的 的향에 대해서는 빈도와 백분율을 구했고, 학력별에 따라 未婚男性의 家族意識은 差異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그 差異를 비교하고 통제적으로 意味가 있는 것을 檢證하기 위해 Chi-square test를 하였으며 5 % 수준에서 意義있는 差異로 인정하였다.

#### 4. 研究의 制限點

本研究는 다음과 같은 制限點이 있다.

① 지역이 부산시내 일부로 한정된 점 ② 전국적으로 산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국부적이며 지역적인 연구라는前提를 밝혀둔다.

#### 5. 調査對象者の 一般的 性格

본 조사대상자의 一般的 性格은 학력, 연령, 직업, 종교를 중심으로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학력은 고졸이 36.08 %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대학재학 33.33 %, 대졸 18.73 %, 중졸 이하 11.84 %순이었다. 연령은 26 세 ~ 27 세가 23.96 %로 가장 많았고 24 ~ 25 세가 20.11 %, 22 ~ 23 세가 19.83 %, 28 ~ 29 세가 16.25 %, 21 세이하가 12.94 %, 30 세이상 7.16 %순이었다.

직업은 학생이 33.33 %로 가장 많았고, 사무원 31.4 %, 자유업과 공원이 8.26 %, 공무원 5.51 %, 기타 5 %, 교사 3.63 %, 접원 3.03 %, 은행원 2.47 % 순이었다.

종교는 종교가 없음이 63.08 %로 가장 많았고, 불교 23.69 %, 기독교 9.09 %, 천주교 4.13 % 순이었다.

### 結果 및 考察

#### 1. 家族一般에 關한 意識

학력별로 살펴본 현재의 가족형태와 희망하는 가족형태는  $\chi^2$  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chi^2 = 11.036$ , df = 2, P < .05). 가족형태는 학력이 낮을수록 핵가족화 경향을 보이고 있어, 현재의 가족형태에서 「부모와 자녀」인 경우가 중졸이하인 경우

##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6.8%인 반면에 대재이상은 66.3%로 나타났다(표 1-1 참조).

또한 희망하는 가족형태에서도 중졸이하는 「조부모·부모·자녀」가 11.1%이나 대재이상은 15.4%로 중졸이하보다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표 1-2 참조).

노후의 자녀와의 동거여부는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가 30.8% 「부부만 따로」인 경우가 51.8%로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어(표 2) 핵가족화 경향에 따른 개인주의적 사회의식이 가족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 참조).

이익 우선 여부는 가족(57.6%), 공동(31.9%), 개인(10.5%)의 순위를 나타내고 있어 개인 이익을 우선하기보다는 공동이익을 우선으로 여기는 바람직한

사회의식을 보이고 있으며 가족중심 위주의 운명공동체적 이익에 중점을 두고 있음이 드러났다(표 3).

자녀의 장래를 결정하는 문제는 부모와 자녀가 합의해서 한다는 것이 6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별로도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다( $\chi^2 = 19.76$ ,  $df = 4$ ,  $P < .01$ ). 고학력자일수록 부모나 본인중심보다는 부모와 자녀가 합의해서 장래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가정운영 방법은 「서로 의논한다」는 것이 87.7%로 아주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학력별로도 유의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 $\chi^2 = 24.28$ ,  $df = 4$ ,  $P < .01$ ) 저학력일수록 웃어른끼 복종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에 고학력일수록 서로의논하는 논의 결정 방향을

**표 1-1. 현재의 가족형태**

학력별 선택지	중졸이하 N (%)	고졸 N (%)	대재이상 N (%)	계 N (%)
부모와자녀	33(76.8)	94(71.8)	124(66.3)	251(69.1)
조부모·부모·자녀	6(16.5)	16(12.2)	54(27.4)	76(20.9)
기타	4(6.7)	21(16.0)	11(6.3)	36(10.0)

$$\chi^2 = 11.036 \quad df = 2 \quad P < 0.5$$

**표 1-2. 희망하는 가족 형태**

	중졸이하 N (%)	고졸 N (%)	대재이상 N (%)	계 N (%)
부모와자녀	30(71.8)	91(69.5)	144(73.6)	265(73.0)
조부모·부모·자녀	4(11.1)	17(3.0)	28(15.4)	49(13.5)
기타	9(17.1)	23(17.5)	17(11.0)	49(13.5)

**표 2. 노후 자녀와의 동거 희망**

학력별 선택지	중졸이하 N (%)	고졸 N (%)	대재이상 N (%)	계 N (%)
아들	12(26.5)	32(24.4)	57(29.6)	101(27.8)
딸	1(3.3)	3(2.3)	7(3.5)	11(3.0)
부부만 따로	19(40.4)	74(56.5)	96(51.5)	188(51.8)
모르겠다	11(29.8)	22(16.8)	30(15.4)	63(17.4)

고정자 : 未婚 男性의 家族意識에 관한 考察

지향하고 있음이 드러났다(표 5 참조).

2. 婚姻에 關한 意識

이성교제의 동기는 「사회적인 적응력과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배우자 선택」이 50.9%, 34.1%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결과는 학력별로도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어 학력이 높아질수록 배우자 선택보다는 사회적 적응력과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에 이성교제의 동기를 두고 있다( $\chi^2 = 24.28$ ,  $df = 6$ ,  $P < .01$ ) (표 6 참조).

처음 데이트하는 시기는 17~8세가 43.3%로 가장 높으며 20~21세가 20.4%, 16세 이전이 13.5%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는 학력별로도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다( $\chi^2 = 30.8$ ,  $df = 12$ ,  $P < .01$ ).

(표 7 참조).

데이트 상대자를 결혼상대자로 생각하는 경우 「그렇다」가 26.2%인 반면, 「아니다」가 56.2%로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이성교제가 곧 결혼을 이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결혼상대자를 구하기 위한 광범위한 교제필요 의식으로 일반화되고 있는 경향으로 보여진다(표 8 참조).

바람직한 데이트 상대는 고학력일수록 「대화를 나눌수 있는 상대」에 높은 반응을 보이는데 반해 저학력자는 「외모나 동일한 취미」에 맞추어 상대자를 구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chi^2 = 32.19$ ,  $df = 10$ ,  $P < .01$ ) (표 9 참조).

학력별로 살펴본 고정적인 데이트 상대자는 「없다」

표 3. 가족·개인 이익 우선 여부

학력별 선택지	중 졸 이 하 N (%)	고 졸 N (%)	대 재 이 상 N (%)	계 N (%)
개인의 이익	7(16.0)	10 ( 7.6 )	21 ( 11.9 )	38 ( 10.5 )
가족의 이익	25(54.7)	82 ( 62.6 )	102 ( 55. )	209 ( 57.6 )
공동의 이익	11(29.3)	39 ( 29.8 )	66 ( 33.1 )	116 ( 31.9 )

표 4. 자녀의 장래 결정 문제

학력별 선택지	중 졸 이 하 N (%)	고 졸 N (%)	대 재 이 상 N (%)	계 N (%)
본인 중심	13 ( 34.7 )	33 ( 25.2 )	50 ( 26.7 )	96 ( 26.4 )
합의해서	22 ( 45.4 )	92 ( 70.2 )	134 ( 77.6 )	248 ( 66.3 )
부모 중심	8 ( 19.9 )	6 ( 4.6 )	6 ( 2.7 )	19 ( 5.3 )

$$\chi^2 = 19.76 \ df = 4 \ P < .01$$

표 5. 가정 운영 방법

학력별 선택지	중 졸 이 하 N (%)	고 졸 N (%)	대 재 이 상 N (%)	계 N (%)
웃어른의견에 복종	9 ( 20.9 )	14 ( 10.7 )	8 ( 4.3 )	31 ( 8.5 )
서로의논	32 ( 74.6 )	113 ( 86.3 )	173 ( 90.8 )	318 ( 87.7 )
관심없다	2 ( 4.5 )	2 ( 1.5 )	7 ( 4.5 )	11 ( 3.0 )
기타	0 ( 0. )	2 ( 1.5 )	2 ( 0.4 )	3 ( 0.8 )

$$\chi^2 = 24.28, df = 4, P < .01$$

표 6. 이성 교제 동기

학력별 선택지	중 졸 이 하 N (%)	고 졸 N (%)	대 재 이 상 N (%)	계 N (%)
오락적으로	1 ( 2.3)	2 ( 1.5)	15 ( 7.9)	18 ( 5.0)
남들이 하니까	2 ( 4.6)	1 ( 0.8)	4 ( 2.1)	7 ( 1.9)
사회적인 적응력과 사고능력을 기르기 위해	22 (51.2)	85 (64.9)	107 (56.7)	214 (50.9)
배우자 선택을 위해	18 (41.9)	43 (32.8)	63 (33.3)	124 (34.1)

 $\chi^2 = 24.28 \ df = 6 \ P < .01$ 

표 7. 처음 데이트하는 시기

학력별 선택지	중 졸 이 하 N (%)	고 졸 N (%)	대 재 이 상 N (%)	계 N (%)
16세 이전	5 (11.6)	22 (16.8)	22 (11.6)	49 (13.5)
17 ~ 18 세	15 (34.9)	68 (51.9)	74 (39.2)	157 (43.3)
19 ~ 20 세	8 (18.6)	14 (10.7)	52 (27.5)	74 (20.4)
21 ~ 22 세	2 ( 4.6)	3 ( 2.3)	15 ( 7.9)	20 ( 5.5)
23 ~ 24 세	1 ( 2.3)	5 ( 3.8)	7 ( 3.1)	13 ( 3.6)
25 세 이상	0 ( 0 )	0 ( 0 )	1 ( 0.5)	1 ( 0.3)
경험 없음	12 (30)	19 (14.5)	18 ( 9.2)	49 (13.4)

 $\chi^2 = 30.8 \ df = 12 \ P < .01$ 

표 8. 현재 데이트 상대자를 결혼 상대자로 생각하고 있는가

학력별 선택지	중 졸 이 하 N (%)	고 졸 N (%)	대 재 이 상 N (%)	계 N (%)
그런 것 같다	11 (25.6)	28 (21.3)	56 (29.7)	95 (25.7)
아닌 것 같다	23 (53.6)	78 (59.3)	103 (54.6)	204 (55.1)
모르겠다	9 (20.8)	25 (19.4)	30 (15.6)	64 (19.2)

가 60.4%, 41.2%, 33.3%로 학력이 낮을수록 고정적인 데이트 상대자가 없음을 보이고 있다(표 10 참조).

배우자의 선택조건은 성격(26.3%), 건강(23.0%), 생활력(13.8%)에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학력별로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어 ( $\chi^2 = 120.1$ ,  $df = 18$ ,  $P < .01$ ), 학력이 낮을수록 생활력에 치중하고 있는

데 반해, 고학력일수록 성격(22.5%, 26.0%, 27.2%)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음이 드러났다(표 11 참조).

婚前 純潔에 對해 「꼭 지킨다」 25.1%로 1970 年度 調査<sup>47)</sup>의 64.5%에 比해 貞操觀念이 稀薄해졌음을 알 수 있으나 「비교적 지킨다」가 「지킬 必要없다」에 比해 越等히 높은 比率을 보이는 것은 아직도 純潔을 지

고정자 : 未婚 男性의 家族意識에 관한 考察

표 9. 바람직한 데이트 상대

학력별 선택지	중졸이하 N (%)	고졸 N (%)	대재이상 N (%)	계 N (%)
동일한 취미 화려한데이트를 제공 하는 상대	9 (20.9) 1 ( 2.3)	18 (13.7) 1 ( 0.8)	12 ( 6.9) 11 ( 5.8)	39 (10.7) 13 ( 3.6)
자기를위해주는상대 대화를나눌수있는상대	11 (23 ) 16 (37.3)	21 (16.6) 86 (65.6)	43 (22.8) 108 (57.2)	75 (20.7) 210 (57.9)
외모가 좋은 상대 학벌이나머리가 좋은상대	5 (11.7) 1 ( 2.3)	1 ( 0.8) 4 ( 3.1)	13 ( 6.2) 2 ( 1.1)	19 ( 5.2) 7 ( 1.9)

$\chi^2 = 32.19 \ df = 10 \ P < .01$

표 10. 고정적인 데이트 상대자

학력별 선택지	중졸이하 N (%)	고졸 N (%)	대재이상 N (%)	계 N (%)
있다	5 (11.6)	34 (26.0)	69 (36.5)	108 (29.8)
없다	26 (60.4)	54 (41.2)	63 (33.3)	143 (39.4)
현재는없지만있을적이있다	12 (28 )	43 (32.8)	57 (30.2)	112 (30.8)

표 11. 배우자 선택 조건

학력별 선택지	중졸이하 N (%)	고졸 N (%)	대재이상 N (%)	계 N (%)
외모	5 ( 3.9)	33 ( 8.4)	102 (18.0 )	139 (12.8)
성격	29 ( 22.5)	102 (26.0)	155 (27.2 )	286 ( 26.3)
교육	11 ( 8.5)	46 (11.7)	80 (14.0 )	137 ( 12.6)
건강	33 ( 25.6)	99 (25.2)	120 (21.1 )	252 ( 23.0)
가문	3 ( 2.3)	8 ( 2.0)	33 ( 5.9 )	44 ( 4.0)
생활력	29 ( 22.5)	74 (18.8)	47 ( 8.2 )	150 ( 13.8)
재산	4 ( 3.1)	3 ( 0.8)	10 ( 1.8 )	17 ( 1.6)
직업	15 ( 11.6)	15 ( 3.8)	3 ( 0.5 )	33 ( 3.0)
취미		5 ( 1.3)	12 ( 2.1 )	17 ( 1.6)
종교		8 ( 2.0)	8 ( 1.2 )	14 ( 1.3)

$\chi^2 = 120.1 \ df = 18 \ P < .01$

어야 한다는 性倫理가 支配的임을 보여주고 있다(표 12 참조).

Landis와 Terman의 報告에서 純潔을 지킨 사람들 이 幸福한 結婚生活을 한다고 하였으며, Burgess 와 William은 婚前 性關係를 가진 結婚者들에서 상당히 높은 離婚率을 보여 준다고 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누구나 다 幸福한 結婚生活을 원하는 것이므로 그러기 위해서는 婚前 純潔은 男女 누구에게나 重要하게 생각되어져야 할 것이다.

約婚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研究結果에서 約婚期間과 結婚生活의 適應과는 密接한 關係가 있다는 점과 約婚期間이 길수록 서로의 理解와 適應이 容易하다는 것을 알았다<sup>49)</sup>.

Anderson은 6個月 또는 그 이상의 約婚期間을 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행연구에서 姜恩淑<sup>49)</sup>은 약혼기간을 4~7개월이 좋다가(제주 54%, 서울 42%)로 나타났으며 본연구에서도 6個月 이내가 60.3%, 1年이내 32.3%로 나타났다. 이러한 現象은 大部分의 未婚男性들이 約婚期間을 最少限度 相對方의 思考와 價值觀을 判斷할 수 있고 結婚을 準備하는 期間으로 생각하는 傾向인 것으로 생각된다(표 13 참조).

約婚은 結婚의 約束이나 곧 結婚이 되는 것은 아니며 언제나 約婚을 解除할 수 있다(民法 제 804 조 참조).

「정당한 理由가 있으면 약혼을 해제해도 된다」가 57.9%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破婚을 禁止하였던 종래의 思想이 많이 弱化된 것 같으며 「쉽으면 억지

표 12. 혼전 순결문제

학력별 선택지	중졸이하 N (%)	고졸 N (%)	대재이상 N (%)	계 N (%)
꼭 지킨다	10 (23.3)	35 (26.7)	46 (24.3)	91 (25.1)
경우에 따라서 지킨다	19 (44.2)	48 (36.6)	84 (44.4)	151 (41.6)
지킬 필요가 없다	12 (27.9)	37 (28.2)	50 (26.5)	99 (27.2)
기타	2 (4.6)	11 (8.5)	9 (4.8)	22 (6.1)

표 13. 약혼 기간

학력별 선택지	중졸이하 N (%)	고졸 N (%)	대재이상 N (%)	계 N (%)
6개월 이내	25 (58.1)	77 (58.8)	117 (61.9)	219 (60.3)
1년 이내	12 (27.9)	43 (32.8)	62 (32.8)	117 (32.3)
1~2년	5 (11.6)	9 (6.9)	6 (3.2)	20 (5.5)
2년 이상	1 (2.4)	2 (1.5)	4 (2.1)	7 (1.9)

표 14. 約婚 解除

학력별 선택지	중졸이하 N (%)	고졸 N (%)	대재이상 N (%)	계 N (%)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가능	25(58.3)	73(55.7)	112(59.4)	210(57.9)
쉽으면 억지로 결혼할 필요가 없다	14(32.6)	47(35.9)	62(32.8)	123(33.9)
파혼은 안됨	1(2.3)	5(3.8)	8(4.2)	14(3.8)
모르겠다	3(6.8)	6(4.6)	7(3.6)	16(4.4)

$$\chi^2 = 64.32 \quad df = 6 \quad p < .01$$

로 結婚할 必要가 없다」가 33.9%인 것은 結婚의 本質이 當事者 意思의 合致 라는 점을 생각할 때 賢明한 判斷이라 하겠다. 「破婚 은 안된다」가 3.9%로 적지만 아직도 約婚은 곧 結婚 이라는 慣習이 남아 있는 듯하다 (표 14 참조).

「仲媒」가 7.2%로 极소수인 것은 傳統的인 方式에 비해 펴 否定의 이지지만 折衝이 48.0% 「戀愛結婚」이 43.5%로 西洋의 自由個人主義의 影響을 많이 받고 있지만 이를 實踐할 수 있는 與件이 아직 成熟하지 못함을 뜻하기도 한다<sup>50)</sup> (표 15 참조). 그러므로 本人中心의 이지만 아직까지 父母에게 依存하려는 것 같으며 异性交際의 實踐의 問題를 考慮하여 組織的이고 系統的인 教育이 必要하겠다. 當事者合意는 1966年 父母選定後 39.4%, 1980年 16.7%로 激減하여 아직도 우리社會에서 戀愛結婚의 時期는 遲遠한 느낌이다. 그것은 西歐의 個人主義的 結婚倫理와는 다른 우리 나라의 家父長制 文化圈의 傳統的 倫理가 아직도 社會를 支配하고 있는데 기인하는 듯하다.

결혼연령은 男「26 ~ 30 歲」가 79.3%로 壓到的으로 높은 것은 經濟的으로 自立하게 되는 時期를 考慮한 것 같다 (표 16 참조).

表 15. 結婚 方法

선택지 \ 학력별	중졸 이하 N (%)	고 졸 N (%)	대재 이상 N (%)	계 N (%)
연 애	10(23.3)	39(29.8)	109(57.7)	158(43.5)
중 매	7(16.3)	9( 9.9)	10( 5.3)	26( 7.2)
절 충	25(58.2)	80(61.1)	69(36.6)	175(48.0)
일방적인 부모의 결정	1( 2.2)	3( 3.3)	4( 2.4)	5( 1.3)

$$x^2 = 36.94 \quad df = 6 \quad p < .01$$

表 16. 결혼 연령

선택지 \ 학력별	중졸 이하 N (%)	고 졸 N (%)	대재 이상 N (%)	계 N (%)
21 ~ 25 세	6 (14.0)	3 ( 2.3)	18 ( 9.5)	27 ( 7.4)
26 ~ 30 세	35 (81.0)	109 (83.2)	144 (76.2)	288 (79.3)
31 ~ 35 세	2 ( 5.0)	19 (14.5)	27 (14.3)	48 (13.3)

그러나 1980年 人口調查에 의하면 結婚年齡은 점점 늦어지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 23 歲前後가 結婚의 時期로서 우리나라보다는 상당히 早婚하는 傾向을 알 수 있다.

부모의 결혼동의는 「필요하다」가 86.5%로 압도적 인 것으로 보아 부모의 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이 드러났으며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남아있는 증거라고 보겠다 (표 17 참조).

### 3. 가족계획에 관한 의식

저학력일수록 둘만 낳기에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음이 드러났다 (81.4%) (표 18 참조).

희망자녀수는 「1 남 1녀」와 「2 남 1녀」가 거의 유사하게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음이 드러났다 (42.4%, 42.1%).

학력별로도 유의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 $x^2 = 31.09$ ,  $df = 8$ ,  $P < .01$ ) 학력이 낮을수록 「1 남 1녀」에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2 남 1녀」에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결과는 (표 19)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명의 자녀가 딸일 경우 「아들을 낳을 때까지 낳겠

〈歐美各國의 평균 초혼 연령비교〉

		1900 이전	1900	1920	1930	1940	1950	1960
노르웨이	남	28.2	27.8	27.6	28.7	29.3	29.3	28.2
	여	26.4	25.9	25.4	25.9	26.4	26.4	26.2
미국	남	26.0	25.0	24.0	24.0	24.0	23.7	23.2
	여	22.0	21.0	21.0	21.0	21.0	20.5	20.4
스웨덴	남		28.0	29.0	29.0			28
	여		26.0	26.0	26.0	21.0		25
핀란드	남	27.3	27.1	26.6	26.6	27.2	26.0	24.9
	여	25.2	24.8	23.8	23.8	23.4	23.6	23.2
영국과 웨일즈	남	25.8	26.6	27.9	27.4	27.5	27.2	26.0
	여	24.4	25.1	25.8	25.5	24.5	24.5	24.1

〈지역별·성별 초혼연령 추이〉

연도별	1945년	1960년	1980년
평균(전국)	남자	22.0	24.3
	여자	17.4	20.4
군(郡)부	남자	21.9	23.6
	여자	17.2	20.0
대도시	남자	22.6	25.2
	여자	18.1	21.0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80. 인구동태표본 조사보고서 (1981. 11) p 104-107.

다」가 중졸 이하인 경우 2.5%의 높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아 아직도 남아 선호 의식이 가족사회 의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0 참조).

4. 상속에 관한 의식

학력별로 살펴본 호주상속제도에 관한 존속 여부는 학력별로 유의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 $\chi^2 = 19.1$ ,  $df = 4$ ,  $P < .01$ ).

고학력자일수록 「호주상속폐지」에 높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음이 드러났다 (표 21 참조).

제사는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制度化<sup>51)</sup>되어 왔었다. 그런데 西洋의 物質文明의 影響은 우리 祖上崇拜에 關한 美俗에도 많은 變化<sup>52)</sup>를 가져다 주게 되었다. 本 調査에 의하면 「반드시 차려야 한다」가 (65.6%)로 아직은 傳統的 肯定의 反應을 보이고 있으나 「아무래도 좋다」 (18.4%)와 「아니다」 (16.0%)는 앞으로 變化가 豫想된다 (표 22 참조).

표 17. 父母의 結婚동의

선택지 \ 학력별	중졸 이하 N (%)	고 졸 N (%)	대재 이상 N (%)	제 N (%)
필요하다	35 (81.4)	121 (92.3)	158 (83.5)	314 (86.4)
필요없다	5 (11.6)	4 ( 3.1)	18 ( 9.5)	27 ( 7.4)
모르겠다	5 ( 7.0)	6 ( 4.6)	13 ( 7.0)	22 ( 6.1)

고정자 : 未婚 男性의 家族意識에 관한 考察

표 18. 둘 낳기 운동에 대한 찬반

선택지 \ 학력별	중졸 이하 N (%)	고 졸 N (%)	대재 이상 N (%)	계 N (%)
찬 성 한 다	35 (81.4)	106 (80.5)	108 (57.2)	249 (68.8)
반 대 한 다 기 타	4 ( 9.3) 4 ( 9.3)	10 ( 7.6) 15 (11.9)	54 (28.6) 27 (14.2)	68 (18.7) 46 (12.7)

표 19. 희망 자녀수

선택지 \ 학력별	중졸 이하 N (%)	고 졸 N (%)	대재 이상 N (%)	계 N (%)
1 남	1 ( 2.3)	4 ( 3.1)	4 ( 2.1)	9 ( 2.5)
1 女	3 ( 6.9)	0 ( 0 )	1 ( 0.5)	4 ( 1.1)
1 남 1 女	23 (53.6)	66 (50.4)	65 (34.4)	154 (42.4)
2 남	0 ( 0 )	2 ( 1.5)	4 ( 2.1)	6 ( 1.7)
2 남 1 女	13 (30.3)	51 (38.9)	89 (47.1)	153 (42.1)
기 타	3 ( 6.9)	8 ( 6.1)	26 (13.8)	37 (10.2)

$$x^2 = 31.09 \quad df = 8 \quad p < .01$$

표 20. 두 명의 자녀가 딸일 경우

선택지 \ 학력별	중졸 이하 N (%)	고 졸 N (%)	대졸 이상 N (%)	계 N (%)
더 이상 낳지 않겠다	25 (58.2)	91 (69.5)	90 (47.7)	216 (59.5)
1명만 더 낳겠다	7 (16.3)	22 (16.8)	57 (30.2)	86 (23.7)
아들을 낳을 때까지 낳겠다	1 ( 2.5)	18 (13.7)	42 (22.1)	61 (16.8)

표 21. 호주 상속 제도 존속여부

선택지 \ 학력별	중졸 이하 N (%)	고 졸 N (%)	대재 이상 N (%)	계 N (%)
존속시켜야 한다	30 (69.8)	93 (71 )	124 (65.6)	247 (68 )
제 지 해 야 한다	2 ( 4.7)	13( 9.9)	29 (15.4)	44 (12.2)
모 르 겠 다	11 (25.5)	25(19.1)	36 (19.0)	72 (19.8)

$$x^2 = 19.1 \quad df = 4 \quad p < .01$$

장자의 제사 책임여부는 「형편에 따라서」가 52.1 %로 높은 반응을 보여 전통 의식의 탈피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학력이 높아질수록 「장자가 꼭 제사책임을 지

지 않아도 된다」에 높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 $x^2 = 11.0$ ,  $df = 4$ ,  $P < .01$ ) (표 23 참조).

표 22. 제사는 앞으로도 존속해야 되는가

선택지	학력별 중졸 이하 N (%)	고 졸 N (%)	대재 이상 N (%)	제 N (%)
그 렇 다	32 (62.6)	82 (62.6)	124 (65.6)	238 (65.6)
아 니 다	4 (13.0)	17 (13.0)	37 (19.6)	58 (16.0)
아 무 래 도 좋다	7 (24.4)	32 (24.4)	28 (14.8)	67 (18.4)

$\chi^2 = 11.0$       df = 4      p < .01

표 23. 장자의 제사책임 여부

선택지	학력별 중졸 이하 N (%)	고 졸 N (%)	대재 이상 N (%)	제 N (%)
그 렇 다	12 (27.9)	20 (15.3)	31 (16.4)	63 (17.4)
아 니 다	7 (16.3)	40 (30.5)	52 (27.5)	99 (27.2)
형 편에 따라서	24 (55.7)	66 (50.4)	99 (52.5)	189 (52.1)
모 르 겠 다	0 ( 0 )	5 ( 3.8 )	7 ( 1.6 )	12 ( 3.3 )

### 結論 및 提言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 1. 가족일반에 관한 의식

1) 가족형태는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해가는 추세이며 家庭運營面에서는 서로 「議論」하는 民主的인 체계로 發展해가고 있으나 學歷이 낮을수록 웃어른 意見에 服從한다는 率이 높은 것으로 보아 자식의 父母에 對한 傳統的인 片務隸屬關係로 보여준다. 家族, 個人利益與否에 있어서는 家族의 利益이 個人的 利益보다 높은 것은 종래의 傳統的인 思想보다는 運命共同體라는 점을 考慮한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며, 老後에 子女와의 同居希望은 「마로 살겠다」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아 意識面에서는 二代의 核家族制度를 원하고 있음이 立證된다.

2) 子女將來問題의 決定은 個人主義思想의 導入으로 封建主義 思想이 崩壞되어 가는 過程으로서의 「合意」로 志向되고 있다.

#### 2. 婚姻에 對한 意識

1) 異性交際에 있어서 動機는 配偶者 選擇 要求보다는 「社會適應과 社交能力」에 두고 있으며 처음 異

性交際時期는 「17 ~ 19 歲」로 데이트 相對者를 結婚의 相對者로 생각하기 보다는 단지 結婚을 위한 準備段階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아 異性交際에 대한 세심한 配慮가 要請된다. 바람직한 데이트 相對者로서는 우선 「對話」를 重要視하며 固定的인 데이트 相對者는 대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學歷이 높을수록 固定的인 相對者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配偶者 選擇 條件은 「性格」「健康」「生活力」「외모」「教育」順으로 精神的인 問題를 가장 重要視하는 것으로 보이며 學歷이 낮을수록 生活力을 重視하는 傾向이 있다.

3) 婚前 純潔은 「경우에 따라 지키는 것」으로 보아 貞操觀念이 稀薄해 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約婚期間은 「6個月 内」로 나타났으며 約婚解除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破婚한다」로 從來의 思想이 많이 弱化된 것으로 생각된다.

4) 結婚方法으로 「折衝」이 높으나 異性交際의 現實的인 問題가 改善되면 本人中心主義 結婚으로 志向될 것으로 보인다. 結婚年齡은 「26 ~ 30 歲」로 이는 經濟的으로 自立하는 時期를 考慮한 것 같다. 結婚時父母의 同意는 「必要하다」로 대부분 儒教的 道德觀念의 강함을 보여준다. 結婚이 늦어지는 이유는 「하고 싶은 일이 많은 것」으로 보아 結婚하면 自由가 束縛

된다는 意識이 殘存해 있는 것 같다.

### 3. 家族計劃에 관한 意識

들 놓기 운동에 「贊成」의 態度를 보이며, 이상 子女數는 1男 1女를 원하고 있고, 두명의 子女가 딸일 경우라도 「더이상 낳지 않는다」로 들 놓기 운동에 肯定의 인 反應을 보여 家族計劃은 普遍的으로 잘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思慮되나, 인구문제에 대한 교육과 남성 스스로 가 가족계획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태도를 갖게 하는 계몽이 보다 요청된다.

### 4. 相續에 關한 意識

戶主相續을 「存續시켜야 한다」가 壓到的으로 많은 것은 男子自身의 權威를 고수하려는 潛在意識이 作用하고 있으며, 아직도 傳統的인 家族制度의 일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사는 「 반드시 차려야 한다」가 높은 比率로 나타나 제사에 대해 肯定의 인 反應을 보이고 있으나 앞으로는 變化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제사는 맘자손이 責任지는 대신에 「형편이 許諾하는 사람이 責任」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現象은 長男為主의思想보다는 現實的인 與件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미혼남성의 가족의식은 서구의 개인주의와 전통적 봉건주의의 過渡期속에서 合理主義의이고 個人主義의인 指向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젊은 未婚男性들이 結婚, 家族計劃 및 相續問題에 對해 消極의 인 反應을 보이는 것은 아직도 確固한自己信念이 不足한 것으로 생각되어 再教育을 통해 確固한自己信念을 갖도록 한다면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思慮된다.

끝으로 研究對象과 調査地域의範圍를 廣範圍하게 하여 比較分析한다면 本論文에서 보다 더 확고한 자료가 얻어질 것으로 보인다.

### REFERENCES

- 1) 金斗憲 : 현대의 가족, 서울 : 을유문화사, 1975, pp 59.
- 2) Kephart, M.W. : *The Family Society and the individual Privated U.S.A.*, 1966, pp 2-3.
- 3) 李光奎 : 한국가족의 구조분석, 一志社, 1975, pp 14-29.
- 4) 崔在錫 : 한국가족 연구, 민중서판, 1975, pp 215.
- 5) 金泳謨 : 한국사회학, 法文社, 1974, pp 149-150.
- 6) 崔在錫 : 前揭書, pp 306-312.
- 7) 李熙鳳 : 북한법률행정론집 제 1집, 고려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1970, pp 120-121.
- 8) 鄭貞順 · 李光奎 : 가족관계,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8, p5.
- 9) 李効再 : 家族과 社會, 民朝社, 1976, p 20.
- 10) G.P. Murdock: *Social structure*, Macmillan, 1949, pp 1-11.
- 11) 青山道夫外編 : 家族의 歷史, 弘文堂, 1973, p 405.
- 12) J.H. Goldthorpe et al.: *The Affluent worker in the class Structure*, Cambridge, 1969, p 108.
- 13) 青山道夫 : 前揭書, p 415.
- 14) R.M. MacIver and C.H. Page: *Society, An Introductory Analysis*, Macmillan, 1950, pp 263-264.
- 15) 大橋薰外 : 家族社會學, pp 52-58; 서병숙外 가정학 개론에서 재인용.
- 16) Ernest, W. Burgess, Harvey J. Locke: *The family From Institution to Companionship*, New York, 1953.
- 17) Song Han Kyu: *Family Changes in Modernizing Korea*, Ph. D. dissertation, The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D.C., 1978, p 136.
- 18) 이효재 : 서울시 가족의 사회학적 고찰,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제 1집, 1960, p 47.
- 19) 이천세 : 농촌지역 주민의 가치관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73, p 70.
- 20) 이해영 · 권태환 : 가족가치변용에 관한 고찰, 진단 학보 31, pp 161-163.
- 21) 이효재 : 가족과 사회, 서울 : 경문사, 1983, pp 59-61.
- 22) 최신덕 : 미혼여성의 결혼관 및 직업관, 청년연구 3집, 1980.
- 23) Linton, C., Freeman : *Marriage without Love: Mate Selection in Non-Western Society*, in Robert F. Winch & Louis Wolfe Goodman, 3rd ed. *Selected Studies in Marriage and The Family*, 1968, p 457.
- 24) 金疇洙 : 가족관계학, 進明文化社, 1973, p 49.
- 25) 柳時中 : 韓國大學生의 結婚觀, 曉岡崔文換博士記念論文集, 1977, pp 16-17.
- 26) 崔信德 : 한국남녀대학생의 데이트실태에 관한 조

- 사연구, 1974.
- 27) E.M. Duvall & R. Hill : *When you marry* (association press, N.Y. 1953), p24.
- 28) Henry, A. Bowman : *Marriage for Moderns*, McGraw-Hill Book Co, 1970, p 72.
- 29) Nena O'Neill & George O'Neill, *Open Marriage* (M.Evans & Co, Inc N.Y. 1972), pp67-70.
- 30) Nick Stinnet & James Waltens : *Relationship in Marriage & Family*, Macmillan Publishing Co, Inc. N.Y. 1977, p 68.
- 31) Truxal, A.G., Merill, F.M. *The Family in American culture*, 1947.
- 32) Robert, C. Williamson : *Marriage And Family Relations*, Wiley.
- 33) Judson, T. Landis & Mary, G. Landis : *Bilding a Successfull Marriage*, New York: Prentiū-Mall Inc, 1951, pp37-49.
- 34) 劉永珠 : 韓國家族에 있어서 結婚研究, 仁荷大人文科學研究論文集, 2, 1976, pp138-139.
- 35) 柳時中 : 韓國大學生의 結婚觀, 晴岡崔文換博士記念論文集, 1977, pp325-326.
- 36) 金疇洙 : 前揭書, p 89.
- 37) 김두현 : 한국가족제도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68.
- 38) 노창섭 : 한국도시인의 가치관, 논총제 5집, 한국문화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1964, pp 95-112.
- 39) 김옥열외 2인 : 노동자 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가족계획연구, 아세아여성연구제 13집, 숙명여자대학교, 1974, p 22.
- 40) 이정우 : 학교교육과정에의 인구교육 도입을 위한 예비적 연구, 학생생활연구 11, 숙명여자대학교, 1977, p 129.
- 41) 권태환 : *Differentials in Korea Fertility*, p 186.
- 42) 青山道夫, 家族法論, 法律文化社, 1960, p 240.
- 43) 김주수, 前揭書, p 346.
- 44) 정광현, 친족상속법요론, 위성문화사, 1958, p 311.
- 45) 마누法典, 第9章, 107節, 117節參照.
- 46) 日本의 相續制.
- 47) 최재석, 前揭書, pp 403-404.
- 48) 류영주, 前揭書, p 101.
- 49) 강은숙, 서울시와 제주시의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59 - 60.
- 50) 김주수, 前揭書, p 104.
- 51) 李陸子, 여고생의 가족의식에 관한 실증적 고찰,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69, p 51.
- 52) 최신덕, 사회변천과 한국가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79.